

경제

장기화 되는 초저금리 시대의 폐해

은행수신 줄고 자산거품 우려

고수익 찾아 주식시장으로 돈 몰려...금리 정상화 절실

초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예금에 이어 채권마저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전락하면서 실물경제와 동떨어진 자산과열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는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개월째 동결시키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자 시장금리까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였던 점을 감안할 경우 금리가 연 2%대인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도 손에 쥐는 이자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준 데 이어 9월중에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증시 대기자금이라 할 수 있는 고객예탁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객예탁금은 지난 13일 현재 14조6750억원으로 지난 8월말 12조6814억원보다 2조원 가량 늘었다. CMA 잔고도 43조2444억원으로 이 기간에 1조원 가량 늘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가을을 맞아 등산복·아웃도어 기획전을 열고 에코로바, 레드페이스, 클링 등 아웃도어 전문브랜드의 등산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사진은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진행중인 '등산복대전'을 찾은 고객들이 등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제공>

아웃도어 잘 팔리니 세일실적도 ↑

백화점 가을세일 매출 증가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17일까지 진행된 가을 정기 바겐세일에서 혼수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매출이 늘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2010 가을 정기 바겐세일'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0% 가량 증가했다.

“교통량 조사 달라...재조사해야”

대책위, 오늘 대형마트 입점반대 삭발식 예고

광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가 18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자 지역 중소상인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이하 대책위) 등 지역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10시 북구청 앞에서 건축허가 저지를 위한 삭발식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북구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영백염전, 美에 1510만달러 수출



친환경염전시설 모범업체인 영백염전(주)가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국제소금박람회'에서 미국드립라이프사와 김스푸드센터 등에 총1510만달러 수출계약서를 체결했다. <사진> 국내 천일염 수출규모로는 최대실적을 이룬 영백염전(주)가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국제소금박람회'에서 미국드립라이프사와 김스푸드센터 등에 총1510만달러 수출계약서를 체결했다.

국고채 실질금리 '마이너스'

확정금리 상품 수익기대 못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의 실질금리가 1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은행예금에 이어 채권마저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전락하면서 확정금리 상품에서는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금리를 대표하는 지표물인 3년 만기 국고채 실질금리는 8월 연 1.13%에서 9월 -0.12%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간 증시 포커스

목표 수익률 낮게 잡고

종목별 모멘텀에 주목

코스피지수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기대, 미국 기업의 호진전 실적, 중국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소폭 조정 이후 재차 반등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장세를 주도했던 외국인 매수세가 고르지 못하고,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남아있어 지수 변동성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세 가지 변수가 얼마나 행위를 떨치느냐에 따라 지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 변수인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20일에 공개되는 베이지북을 통하여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변수는 종목별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향후 5년 동안의 새로운 이정표에 따라 관련 수혜 종목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실적 변수가 장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장세에 표출될 전망이다.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는 대체로 장세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분기 들어서면서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어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질 수 있는데다, 중국 등 신흥국 소비 확대에 따른 부분이 미국시장의 매출 감소를 상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사항은 이미 인텔의 실적 공개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의 종목별 움직임의 특징은 주도주의 반등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과 그동안 조정을 보였거나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 중심의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적 공개가 끝나고 부정적인 전망이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된 종목도 반등 대열에 합류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지수 부담과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대형주에 비해 중형주와 소형주의 각개 약진도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지수 부담을 피해 종목 찾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도 종목별 수익률 게임은 화려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장세 움직임이 이러하다면 매수 후 보유 전략보다는 등락을 이용한 기술적 매매를 권한다. 아울러 그동안 지수 상승 폭도 상당한 만큼 흥분을 노리기 보다는 안타를 치겠다는 정도로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고 장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격 매력과 업황 개선 가능성에 따라 반등에 나서고 있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관련주와, 중국 기업 상장 종목, 트로이카(증권, 은행, 건설) 종목과 낙폭이 컸던 중형주로 안타를 노려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 종목과 코스피 시장의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주목이 필요해 보인다.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Advertisement for the 2010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It features a man and a woman in business attire, the text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세요', and a list of survey details including dates, metho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tatistics Korea website.